



## 아세아 전력사업 시장의 장기 전망

### 1. 「솔로몬 브라더즈」의 전망

경제학은 서투른 과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시아의 잠재능력을 예측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점성술과 같으며 희망의 과학이기도 하다 — 심지어는 “나쁜 통계”도 아시아는 세계의 어느 다른 경우보다 얼마간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장 최근의 예측, 통계 및 분석의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홍콩의 「솔로몬 브라더즈」로부터 단기 성장 모형의 한 내역이 제시되었으며, 항상 박진감 넘치는 역동적인 팽창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설사 경제적인 후퇴로 보이는 경우라 할 지라도 성장이라는 낱말은 효과적인 단어이다.

예를 들면 솔로몬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이 1995년의 8.9%에서 1996년에는 단지 8%로 둔화되었다. 이것은 “억제된 소비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태국도 몇 년간 지속된 GDP 성장이 8.6%에서 8%로 미끄러지기는 하였으나 부력이 있는 기운찬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경제는 “성장 둔화의 명확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 2. GDP의 성장 러시

말레이시아의 성장은 감속 모드에 놓여 있으며 GDP는 9.6%에서부터 낮아져서 1996년에는 8.5%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전망의 수정 대상으로서 1995년의 8.7%로부터 GDP가 1996년에는 8%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반도체 부문의 성장 둔화에 있는 것이다. 이웃 대만은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6.1%로부터 1996년에는 6.2%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두 개의 다도해국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통화팽창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자율은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높았으며, 수출은 취약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반환점을 지나서 되돌아오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필리핀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확대를 시행하였으며 유통부문의 규제 완화는 가격에 대한 상향 압력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출의 개선으로 큰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 3. 중국의 경우

고속 성장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신용대출의 완화 덕택으로 1995년의 10.2%로부터 1996년에는 단지 9%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홍콩은 1997년의 이양을 앞두고 자본 탈출에 대한 관심의 근원으로서 1995년의 5% 성장으로부터 1996년에는 5.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신용도 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 푸어즈(S&P)」가 이 전망과 동시에 그들의 전망을 발표하였는 바 여기에 의하면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현재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5%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전세계 연평균 성장률은 2.2%). 이것은 현재로부터 2015년 사이에 아시아가 전세계 지구촌 에너지 소비 증가의 50%를 차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의 전망

더구나 2000년이면 아시아는 세계의 선두주자적인 에너지 소비자로서 북미 대륙을 추월하게 될 것이며, 2015년이면 북미보다 50%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20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아시아의 점유율이 현재의 27%에서 35%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S&P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인도가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해외 전력사정**

S&P는 현재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의 약 47%는 중국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0년에 가서는 중국은 전 서유럽의 전체 에너지 소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18%로 중국과 인도를 합쳐서 전세계의 에너지 소비 증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 예측은 지적하고 있다.

**5. 성장하는 호랑이와 용**

이들 외에 아시아의 성장하는 다른 '호랑이'와 '용'들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걱정할 것 없다. 일본은 이 지역의 주 유통 수입국으로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 20년간 연간 1.3%만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일본이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맡고 있는 점유율이 현재의 19%에서 2015년에는 12%로 가버워짐을 뜻하는 것이다. 다른 강력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이 기간을 거치는 동안 보다 덜 에너지 집약적인 국면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한 어서 D. 리틀씨의 보고서를 뒷받침하면서 S&P는 석탄의 지배적인 지위가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아시아는 세계 석탄 매장량의 30%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고 중국은 2015년에 전력소비가 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아시아는 또한 2015년이면 천연가스의 중요한 소비자가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 및 국부 공기오염에 대한 관심의 증

가와 이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6. 25년간 연 5%의 증가율**

이와 같은 사실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빠르게 활약하고 있는 프로젝트 개발 업체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S&P의 다른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25년간에 걸쳐 아시아에서의 전력수요는 연간 5%의 증가율로 신장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20년간에 발전설비용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추가되는 전 설비는 15억kW 즉, 2020년까지의 전세계 발전설비 건설 용량의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은 그때까지 설비 8억 5천만kW의 추가가 필요한 것이다.

**7. 독립계 발전 사업자의 몫**

S&P가 '참조'라고 이름을 붙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5년간에 걸쳐 독립계 전력생산자(IPP)들은 2억 480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해서 '안전' 시나리오는 빠른 속도의 전력부문 개편의 지속으로 IPP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5억 4천만kW까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소위 '판대' 시나리오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은 "역내의 많은 정부들에 의한 제의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의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별 전력부문의 사업규모의 매력은 중국과 인도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까지에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가 중국은 8억 2370만kW로서 인도의 1억 7010만kW보다 현저히 앞서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자들은 인도의 실제 필요량은 중국의 그것에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있으며 다만 이 보고서는 인도는 필요로 하는 발전용량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특히 자금과 관련된 수단에 대하여 불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8. 중국과 인도에서의 IPP 몫**

이 보고서는 IPP들은 아직도 그들의 몫이 11.4%로 전망되고 있는 중국보다 인도에서 추가되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IPP의 몫이 35%가 될 것으로 보아

국가별	전력수요성장	추가설비 필요용량 (GW)	IPP참여 추가설비 비율(%)	기설설비의 민영화전망	사업환경
오스트레일리아	--	21.4	9.4	대	양호
중국	++	823.7	11.4	대	중간
인도	+	170.1	35.1	중	중간
인도네시아	++	40.4	9.2	대	중간
말레이시아	+	19.3	32.1	중	양호
일본	--	81.4	25.0	NA	양호
뉴질랜드	--	0.4	0	중	양호
파키스탄	+	35.1	30.2	대	중간
필리핀	+	14.4	34.6	대	양호
한국	-	75.8	21.4	소	양호
대만	-	45.7	23.0	대	양호
태국	++	66.6	20.9	대	양호
터키	0	26.5	26.4	대	중간

자료: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

인도에서 보다 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성숙한 경제는 새로운 발전설비의 증가에 수반하여 높은 1인당 소득 성장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까지 일본의 추가 발전설비 용량은 8140만kW이며 낙관적으로 봐서 25%가 IPP의 몫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한국은 7580만kW를 필요로 하며 이 중 21.4%가 IPP로부터 그리고 대만은 4570만kW를 필요로 하며 그 중 23%가 IPP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9. 태국에서의 IPP 몫

발전하는 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의 큰 관심의 대상은 태국으로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발전설비 용량은 6660만kW이며 이중 20.9%가 IPP에 의해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UDI 데이터그램은 지구촌의 전력에 대하여 다른 방법의 관찰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발전설비 43억 3184만 6천kW에 대하여 이것을 연료별로 세분화하였다. 전세계의 발전용량은 71,272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10. 석탄의 절대 우위 지속

지구 전체의 발전용량을 보면

석탄이 발전소 7,230유닛에서 13억 5092만kW(31.2%)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수력이 25,472유닛으로 10억 2298만 7천kW(23.6%)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것은 가스연소 발전소가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10,861유닛으로 6억 3798만 9천kW 즉, 전세계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서 파이프라인에 의한 가스연소 발전소들인 것이다. 한편 LNG는 아직 비중이 낮아 274유닛에서 7235만 5천kW로서 1.7%를 차지하고 있다. 유류연소 발전소는 4위로서 18,708유닛에서 5억 6108만 3천kW로서 13%를 차지하며 이를 뒤이어 원자력이 658유닛으로 5억 1067만 4천kW로 11.8%를 차지한다.

재미있는 것은 불명으로 분류된 것이 2,175유닛에서 5354만kW로서 전세계의 발전설비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 「파워 인 아시아」 1996.4.15)

연료구분	유닛	발전용량 (MW)	점유율 (MW의 %)
바이오매스	286	3,555	0.1
석탄	7,230	1,350,920	31.2
가스	10,861	637,989	14.7
지열	444	14,891	0.3
수력	25,472	1,022,987	23.6
액화천연가스 (LNG)	274	72,355	1.7
원자력	658	510,674	11.8
유류	18,708	561,083	13.0
기타 가스	1,283	17,192	0.4
기타 액체	327	16,099	0.4
기타 고체	63	2,671	0.1
쓰레기	349	5,931	0.1
태양	66	581	0.0
불명	2,175	53,540	1.2
폐열	743	48,654	1.1
풍력	1,903	5,722	0.1
화목	430	7,120	0.2
합계	71,272	4,331,964	

비고 : 기설 및 계획된 유닛 포함  
 자료 : UDI 세계 발전소 데이터베이스 (CD-ROM)



## 대만의 제4 원자력 발전소

(프롤로그)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는 전력의 새로운 공급을 갈망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도적인 전력산업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새로 필요로 하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약 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아시아 정부의 승인 절차가 민주주의의 팽창과 뒤뚱거리는 정책으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 해외 전력사정

### 1. 원자력발전소 계획의 생과 사

과거 16년간 대만의 제4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수없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되풀이하여 왔다. 금년 5월 말에 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60억달러의 대형 프로젝트는 윤희의 가장 짧은 사이클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5월 24일 야당 입법 의원들은 대만에서 “제4”로 불려지고 있는 이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살아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전소를 위한 두 개의 원자로 건설은 18억달러에 제너럴일렉트릭(GE)이 주도하고 있는 콘소시엄에 발주되었다.

### 2. 1980년 이후의 자초지종

만일 비평가들이 1980년에 정부가 처음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래의 모든 일들을 알게 된다면 “제4”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궤도에 올려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도 법정 투쟁, 가두 항의시위 그리고 정치적인 투쟁이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의 여당인 국민당(KMT)은 1990년대에 사회기반설비 프로젝트 거래의 마무리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서툴렀던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허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1995년 12

월의 선거에서 국민당은 간신히 가장 많은 의석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히다치-시미즈, 토시바 그리고 블랙 엔드 베치와 함께 팀을 구성하고 있는 GE의 승리는 짧은 기간 동안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 3. 중국의 군사 훈련과 외국인 친구들

대만의 리 덩후이 총통은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최근에 총통선거에서 요란한 승리를 얻은 리 덩후이 총통은 “제4”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총통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중국의 군사 훈련의 기억이 아직 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리 덩후이 총통과 그의 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친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회사들의 그룹과 훌륭한 큰 거래를 한다는 것은 베이징과의 관계가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이때에 대만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 4. GE사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GE사의 전력산업 부문은 이 프로젝트의 수주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다. GE는 경쟁 상대인 웨스팅하우스와 ABB 브라운보베리 등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웨스팅하우스의 대만 지사장인 처크 마틴씨는 GE는 “놀랄 정도로 공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입찰이 개방되어 있는 다른 발전소들은 얼마 없으며 특히 이제

원자력발전소를 더 건설하려는 나라는 더더욱 얼마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 거래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은 발전소가 60억달러 규모인 GE 전력산업의 약 25%를 뜻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수입이 사후 서비스와 연료 재충전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5. 대만전력의 발전설비 용량 예비율: 5%

대만전력은 이 프로젝트 입찰에서 승리한 외국인들만큼이나 이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계획 입안자들은 새로운 발전 설비가 제때에 들어서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연간 경제 성장률 약 6%가 멈추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개발된 국가들이 전력생산 예비율을 20% 내지 25% 정도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만의 전력생산 예비율은 약 5%에 불과한 것이다. 대만전력은 부하관리를 위하여 이미 여름의 첨두전력 사용 시간에 부득이 운번제로 송전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10년에 두 배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대만전력의 대변인인 토니 류씨는 말하고 있다.

### 6. 야당의 원자력에 대한 반대

대만전력은 제4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와 여기에 추가적인 석탄, 가스 및 수력 발전소들로서 그와 같은 수요에 얼마 만큼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부의 제4 프로젝트의

예산승인 거부에 대하여 좀처럼 써먹지 않는 헌법상의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사태를 극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에 대한 비판은 야당인 민진(민주 진보)당(DPP)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DPP는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지연은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계약에 의하면 건설공사는 1996년 9월에 반드시 착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영구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DPP의 입법 의원인 쉰후송씨는 맹서하고 있으며 "KMT는 그들이 이미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 7. 허약한 대만 전력

야당의 강점 중의 한가지는 대만전력 전력공급 활동과 안전에 대한 변변치 못

한 세평이다. 대만전력은 대만의 세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1996년 4월 하순에 대만의 동남쪽에 있는 란위(蘭嶼)섬의 원주민인 야미족 사람들은 대만전력 선박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이 섬에 있는 임시 집적소에 갖다 놓으려고 섬에 도착하였을 때 항구를 둘러싸고 이 선박을 강제로 대만으로 되돌려 보내고 말았다. 또한 지난 4월에 인기 있는 해변 휴양지 인근의 제3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들이 한 시간 동안 격납용기 빌당내로 방사성 수증기를 배출시켰을 때 비평이 대단했었다. 정부 관리는 원자로의 노심용융의 위험은 없다고 말하였다.

### 8. 대만의 선택권

석탄, 가스 또는 석유의 자체적인 매장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수입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대만의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대만에는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을 위한 터미널이 남쪽 항구인 가오슝(高雄)에 있기는 하나 가스를 북쪽의 타이베이(台北)로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이다. 또한 대만의 북쪽은 석탄 하역을 위한 수심이 깊은 항구가 부족하다. 대만전력 천연가스

발전설비를 타이베이 인근에 건설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용지를 구득할 수 없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 로비는 그와 같은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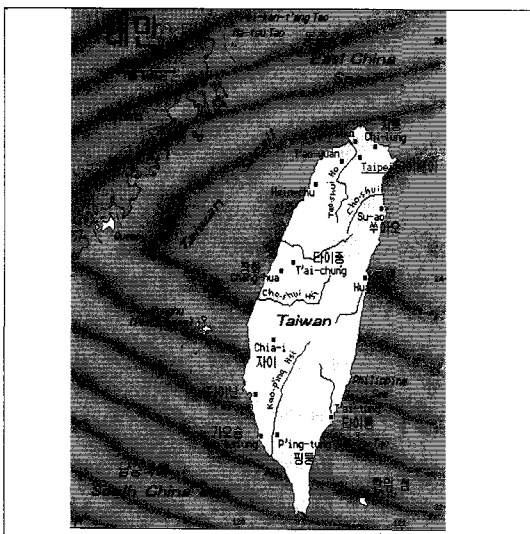
### 9. 많은 사회 간접자본 프로젝트들

대만 당국은 부적격으로부터 부패까지에 이르는 범위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 기반 구축 프로젝트들— 타이베이의 많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권 고속철도 시스템과 같은—을 완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진척을 위해서 고품질의 사회 간접 설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추진되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대만의 야당 인사들은 그들 자신의 결심이 확고부동하다고 한다. 이것은 대만의 죽음을 무릅쓴 제4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에필로그)

근착 외지에 의하면 대만의 입법부가 제4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예산액을 삭감한 바로 다음날 미국의 GE는 원자로 및 기타 기기 공급을 위한 NT\$4940억 (18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입법 의원들은 입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허용하였다고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다.

(자료: 「비즈니스 월드」 1996.6.10)



해외전력사정



# 아시아 역내 전력사업과 APEC의 역할

## 1. APEC의 설립

열 여덟 개 국가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를 설립하게 된 희망 사항에는 역내 전력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9년의 APEC 설립 후 처음으로 회원국 정부로부터 에너지 장관들이 서로 만나서 이와 같은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 2. 에너지장관 회의

1996년 8월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만나서 전력부문 발전에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에서 취할 수 있는 아시아어티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회합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과 권고 사항들은 마닐라에서 개최될 10월의 APEC 지도자 회의에 넘겨지게 된다.

에너지장관 회의 준비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오스트레일리아 컨설턴트는 "향후 3 내지 4년간 APEC에 있어서 식량 문제와 함께 에너지 문제도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궁

극적인 목적은 역내에서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억제 요인이 아니라 공헌요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 3. 협의될 과제들

1996년 8월 28~29일의 에너지장관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역내 에너지 생산, 무역 및 투자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원칙의 승인
- 전력부문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조치
- 기술/기기 표준의 조화를 위한 대책
- 에너지 및 전력 부문 개발의 환경에의 충격 완화
- 새로 설치되는 도쿄의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리서치센터의 운용

## 4.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리서치센터」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리서치센터(APERC)는 모든 APEC 회원국으로부터의 출연을 끌어냄으로써 역내 에너지 공급과 수요상정 등 전문적인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먼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자금이 제공된 이 센터는 공식적으로 1996년 8월에 업무를 개시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APEC의 후원하에 설치되는 에

너지 및 전력산업 경영자들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업계의 견해가 에너지장관 회의에 전달되는 틀이 마련될 것이다.

## 5. 「특별 비즈니스 포럼」의 설치

"전력기반 구조를 위한 역내 협력 특별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위원회가 5월 하순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 포럼의 설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정회사인 블레이크 도슨 월드론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오스트레일리아 농업 및 자원국(ABARE)에 의해서 1995년말에 비즈니스, 에너지 및 전력에 대한 APEC을 위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바로 뒤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6. 보고서의 권고사항 검토

야심찬 정부의 전력부문 확장 계획에 있어서 특히 아시아내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부문 투자를 고려하여 전력기반 구축에의 사업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판단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 작성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였다.

이 비즈니스 포럼의 첫 번째 과제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조기 행동을 필요로 하는 우선지역의 APEC 회원국 에너지장관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일이다.

### 7. IPP의 리스크 감소 대책

두번째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전기규제포럼으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꾸려 나가는 책임있는 정부의 규제기관과 핵심적인 충고자들로 구성되며 또한 그 동안 설립과정에 있으며 5월말에 첫 회합을 가질 예정이었던 것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계 발전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부문이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를 감축시키는데 필요한 규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비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8. 「에너지 워킹 그룹」

새로운 위원회 그리고 검토와 조치의 일반적인 과정은 APEC 에너지 워킹 그룹(EWG)에 의해서 상호 조정된다. 이 EWG는 APEC 포럼내의 몇 개 그룹 중의 하나로서 정부들로부터의 관리들간에 대화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0년에 발족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EWG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캔버라의 코먼웰스 1차산업 및 에너지부(DPIE)의 자원 및 에너지 그룹의 익제큐티브 디렉터인 러셀 히긴스씨가 위원장으로 있다.

### 9. 「전력기반 구조를 위한 역내 협력」

블레이크 도슨 윌드론/ABARE의 보고서인 "전력기반 구조를 위한 역내 협력"은 "역내의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흐름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적인 조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매우 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동 관심사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진지하게 착수하기 위한 정부간의 역내 접근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게 되는 APEC의 기치 아래에서의 프로그램을 제의하고 있다.

### 10. 공동 관심사

공동 관심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 비즈니스 부문 투자의 유치 문제
- 전기 공급 사업의 규제 문제
- 전력기반 구축 투자의 자금 조달 문제
- 연료 혼합의 선택 문제
- 환경 대처 문제

이 보고서는 "각 경제권은 예를 들면 발전기 시양에 대한 협력으로부터 비용이 절감되는 것과 같이 역내 협력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잠재적으로 막대한 비용절감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절감액을 합치면 100억달러가 넘는 규모가 될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 11. APEC의 효율적인 운용

이 보고서는 200명 이상의 역내 그리고 세계의 다른 자본시장의 지도급 사업자, 고위 공직자 그리고 다국적 기관의 간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마련되었으며 APEC은 역내협력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PEC은 회원국 경제권이 자체적으로 자본의 출처와 목적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반 구축의 비즈니스

부문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적합한 포럼이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 12. 다각적인 역내 협력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서 작성자들이 희망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정부가 전력부문 기반 구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돕게 되며, 역내에서의 투자에 대한 판단되는 리스크 수준을 낮추고, 기술이전을 증가시키며, 투자비를 절감시키고 기기 및 연료에 있어서의 역내 무역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자들 중의 한 사람인 블레이크 도슨 윌드론의 파트너이며 상업 변호사인 크리스토퍼 이브스씨는 다각적인 역내협력은 에너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 장려에 대하여 중요하며 과거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 13. 전력 프로젝트의 규모와 특수성

전력사업 기반 구축 프로젝트들은 그들의 크기, 복잡성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자원 등 여러모로 특징이 뚜렷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다양한 경제 분야로부터의 기업체들이 그들의 개발과 사업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자금 제공자, 연료 공급자, 기기 제조자, 주식 투자자, 설비 운전자 그리고 전기의 유통로를 경유한 구매자 등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하나의 체계인 이와 같은 세트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의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해외 전력사정**

**14. 투자비의 절감과 효율 향상**

“APEC 회원국 경제권간에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회원국 모두는 자본비의 절감과 그들의 전력공급산업의 효율 향상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브스씨에 의하면 전력부문에 관련되

는 분야의 역내협력은 이미 APEC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994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보팔에서의 APEC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APEC 회원국들이 갈망할 수 있는 광범위한 투자 원칙에 대한 세트에 합의한 바 있다.

**15. 국가간의 협동**

이브스씨는 APEC의 개발은 정책의

유연성과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 없이 협력을 위한 전략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말한다.

“국제교역의 규제를 위한 기본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규정의 협력 계획은 국가의 비용 부담이 아니라 국가간의 협동적인 조치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자료: 『파워 인 아시아』 1996.4.29)



**미국 - 고객의 공급자 선택권과 새로운 전력유통 문제**

**1. 대량 전력의 이동**

미국 시카고가 1995년 7월에 겪었던 흑서의 열파로 근 500명의 인명 손실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될 때 파울 D. 맥코이씨는 이보다 더 크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재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자뎀을 흘리고 있었다. 7월 13일에 뉴욕 지역의 전력공급을 맡고 있는 코몬웰스에 디슨 전력회사(ComEd)의 송배전 운영 담당 부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양의 전력이 ComEd의 송전망을 마치 코끼리 떼가 놀라서 서로 앞다투며 도망가듯이 큰 파동을 이루며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상적이 아닌 추가적인 전력—분명히 북부의 전력회사로 향하고 있었던—은 ComEd의 송전망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날 맥코이씨는 약 다섯 시간 동안이나 누가 이 전력을 그

의 송전망으로 밀어 넣어 보냈는지 말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그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2. 리스크의 계속적인 증가**

만일 사태가 악화되었다면 열파 때에 실제로 발생하였던 정전사고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될 카스케이드식으로 연달은 전력사고로 발전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ComEd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전력회사가 전력을 과잉 생산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즉시 출력감소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맥코이씨는 전력조류에 대한 정보교환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사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

는 바로 변환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한다. 리스크는 상당히 높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3. 전력 대량 유통을 위한 송전 계통**

맥코이씨는 전력회사간의 경쟁체제로 향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독점의 해제가 가지고 오게 될 보다 낮은 전기요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 전력회사들은 규제완화에 따른 기술적인 필요 사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발전소에서 사로잡혀 있는 지방의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장한 잡동사니 송전계통에 대하여 대량 도매 전력을 위한 철저한 오버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ComEd의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는 전력 회사들은 감시장치, 컴퓨터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큰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 4. 전력회사들의 업살

경쟁에 따르는 리스크는 과장되게 언급될 수도 있다. ComEd와 같은 독점 전력회사들은 위협을 과장하여 강조하여 왔다고 소비자 그룹들은 말하고 있다. "마벨(미국 전화 전신회사의 별칭임)이 이것을 1980년대 초에 시도하였다. 마지막의 거대하고 추악한 독점기업들이 동일한 곡예를 끌어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대형 소비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전기 사용자 자원 협의회」의 기술부문 디렉터인 존 피 허지씨는 말하고 있다. 엔론 코퍼레이션의 「엔론 자본 및 교역 자원」과 같은 전력 마케팅종사 회사들은 가격변동이 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에 고객들은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요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경쟁은 보다 안정성을 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 5.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연방 에너지규제 위원회(FERC)가 1996년 4월에 시행토록 공고한 "개방"을 위하여는 송전 네트워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FERC는 전력회사들은 송전용량을 저장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공정한 가격으로 외부 입찰자에게 팔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는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 경계선을 넘어 특히 단기적인 거래에 있어서 많은 전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이상인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에 있는 미국 전력연구소(EPRI)의 전력송달그룹의 책임자인 마크 알 월헬름씨는 "현재의 시스템은 정말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로운 방법에 맞게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주행하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6. 천분의 1초의 정밀도로 연계 운전되는 발전기들

실제로 전력의 기반 구조는 그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관찰 지역내에 있는 모든 발전소는 풍력발전기로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시계에 천분의 1초의 정밀도로 맞추어져 있으며 교류 전류를 초당 60사이클에 일치되는 맥박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관찰 지역내에서 전류는 마치 물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운하에서 앞뒤로 이리 저리로 흐르듯이 흐른다.

#### 7. 문제점의 대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듯이 전류는 규정이나 매매계약이 가라고 하는 곳과는 관계없이 보다 저항이 작은 통로를 따라 흐르

게 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온타리오 하이드로 전력회사가 전력을 뉴잉글랜드 파워 풀에 팔 때 대부분의 전류는 뉴욕을 경유하게 되며 뉴욕 파워 풀은 전력 수송에 따른 비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낮은 저항 통로를 따라서 완전히 전력의 38%는 미시간, 인디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뉴저지를 경유하는 보다 우회하는 경로를 지나게 된다. 이들 경로상에 있는 전력 회사들은 송전설비를 제공해 준 대가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경쟁체제가 시작됨으로써 전력회사들은 그들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와 같은 넘쳐서 우회하여 흐르는 전력에 대하여 통과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8. 또 다른 어려운 문제

이와 같은 것은 그래도 쉬운 부분으로 판명되었다. 어려운 부분은 사전에 전력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력회사가 그들이 팔 수 있는 송전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ERC는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월드 와이드 웹(www) 페이지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6년 11월 1일부터 모든 전력회사들은 향후 1주일간의 매시간 단위로 제공 가능한 전력수송 용량을 예보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와 같은 예보의 주기는 차후에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송용량을 예측한다는 것은

**해외 전력사정**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발전기의 가동 정지는 파문 영향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간에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유통 용량은 평균적으로 80만kW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만큼의 용량을 어떤 장기적인 구매자에게 약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용량은 150만kW에서 0kW까지 무분별하게 너무나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9. 송전 용량의 판단**

만일 전력회사가—FERC의 의무 사항에 의해서 전력을 운반하려고 시도할 때—송전 용량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위험이 닥치게 된다. 송전 선로망에 너무 많은 전력을 과도하게 공급하게 되면 전류에 요동을 일으키게 되며 이것은 정전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EPRI는 북미 전력신뢰도 협의회(NERC)와 공동으로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EPRI의 담당자조차도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빌헬름씨는 “아주 자주 전력시스템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운전영역으로 밀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 낭떠러지 벼랑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한다.

**10. 독립 시스템 관리자**

경쟁이라는 것이 전력회사, 전력 마케팅 사업자 그리고 다른 사업체들이 정보—어디에서 그들이 송전 병목의 영향을 받았는지, 큰 고객이 언제 추가로 전력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언제 큰 발전기가 가동 중단으로 발전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등의—를 공유하기를 방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경쟁상대인 라이벌은 그들의 고객을 표적으로 해서 그와 같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전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발전 및 송전 설비의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분초를 다투어 판단을 하여야 하는 긴급사태에는 이와 같은 정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가지 옵션은 신뢰도 유지를 위한 “독립 시스템 관리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송전선로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민감한 네트워크 상황의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전력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1. 송전설비에 대한 투자의 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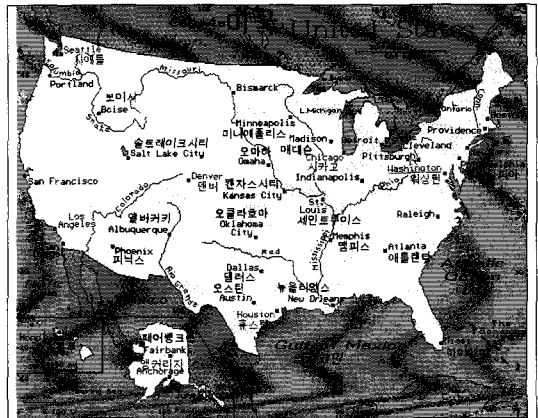
경쟁 세력의 주장에 대하여 우유부단하게 있는 동안에 전력회사들의 송전망 설비에 대한 투자는 거의 말라붙어 버렸다.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에 있는 ABB 시스템 컨트롤의 제너럴

매니저인 칼프 마시엘물씨에 의하면 과거 5년간에 미국이 송전 네트워크용 전력용 변압기에 투입된 금액이 50%로 감소되었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상호연계를 위한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은 투기적인 투자인 것이다—고객이 다른 루트를 더 선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리고 아직 잠재적인 이익은 규제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전력회사에 있어서 연계통로를 넓힌다는 것은 경쟁자가 들어와서 언젠가는 그들의 고객을 훔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인 것이다.

**12. 낮은 전기요금과 높은 공급 신뢰도**

경쟁은 궁극적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낮은 전기요금의 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젠가는 훨씬 높은 신뢰도까지 시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 기능의 보이지 않는 손의 불가사의한 힘과 함께 고객들은 항상 신뢰할 만한 서비스에 대하여 더 많은 돈을 지



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려면 먼저 전력 시스템에 몇 번의 충격이 경과한 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3. 경쟁체제에 대한 방해 요인

이와 같은 전력사업의 경쟁도입은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그리고 특히 큰 고객들에게 전기요금을 낮추어 주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과도기 기간에 신뢰도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에 대한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정보 : 경쟁관계에 있는 전력회사들은 특히 도심지의 전력수요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가와 같은 데이터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② 공장 : 제지 공장에서의 전압 저하는 25만달러에 이르는 하루의 생산을 낭비하게 된다.

③ 제어센터 : 송전제어센터는 전기가 안정되게 초당 60사이클이 유지되도록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경

쟁은 이와 같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전력회사들간에 전력조류가 솟구치게 되기 때문이다.

④ 발전기 : 발전원가가 높은 전력회사들은 송전의 병목현상을 좋아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병목이 경쟁자의 접근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

⑤ 가정 : 소매전력 사용 고객들이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요금 조정 시스템이 한 단계 높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비즈니스 위크', 1996.6.17)



## 영국 - 전력사업의 경쟁체제와 세계시장 진출 전략

### 1. 중앙 발전국의 해체

영국 정부가 1989년에 중앙 발전국(CEGB)을 해체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대한 최소한 세 개의 발전회사와 열두 개의 배전회사를 설립한 것은 전력 사업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영국내 시장에서의 전기공급을 보다 많은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 소유권의 족쇄로부터 풀려남으로써 재정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컨설팅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전세계에 미

치고 있는 규제완화 과정에 있어서 공격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2. 민영화 시대의 개막

존 웨이크햄씨가 에너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오래 전에 그의 선임자 세실 파킨슨씨가 취급을 잘못된 이후 민영화 과정에 대한 회복을 지시하게 되었으며 이때만 해도 이와 같은 새로운 약탈문화가 사냥꾼이 사냥을 당하는 것과 같이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합병과 민간 방식의 두 가지 방식에서 어렵게 투쟁하여 이룩한

전력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영국전력부문이 공격을 당하기 쉽도록 판도가 바뀔 때 따라 외국의 탈취자들에 의해서 잃게 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해외시장에의 진출

이와 같은 것은 그들의 전력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산업이 '국가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발도상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유익한 경고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그러므로 건설-운전-인계(BOT) 방식이 건설-소유-운전(BOO) 방식보다 외국 회사들이 선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해외전력사정

영국 전력회사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대규모 공략은 내셔널 파워(NP), 파워젠(PG) 그리고 영국가스(BG)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내셔널 파워였으며 이 NP는 몇몇 화력발전소를 다른 독립사업자에 양도한 후인 1996~97년에는 PG의 18%에 비해서 2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 4.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중국

NP는 파키스탄의 획기적인 129만 2천kW 하브강 독립발전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도적인 파트너로서 가장 탁월한 자리를 확인받기에 이르렀다. 이 프로젝트는 1995년에 자금투입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부 파키스탄의 140만kW의 코트아두 화력발전단지는 26%의 지분을 소유하게 될 과 동시에 현재 완공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규제가 완화된 파키스탄의 전력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외국사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인도의 힌두차 그룹과의 마이너리티 파트너십으로 안드라 프라데시의 104만k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광시성의 35만kW 2기의 라이빈 독립계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사업자 후보명단에 올라 있다.

### 5. 해외 시장에서의 쟁탈전

영국 전력회사들의 해외 자산취득은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미

국에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의 1억 5천만 달러의 발전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그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17억파운드 규모의 영국 석탄화력 400만kW의 발전설비가 헨슨 그룹을 위하여 짐을 덜러는 준비를 진행중에 있다. 이와 같은 일은 CEGB의 해체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 중 많은 것들이 옆으로 제껴져 관심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 애틀랜타의 US 사우스 회사와 NP가 영국내에서 활극을 연출하였기 때문이다. NP는 파키스탄의 코트아두 프로젝트를 사이에 두고 US사우스 회사와 직접 대결한 바 있으며 이 두 회사는 다른 해외시장에서도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 6. 합병과 취득

1996년 4월 초 사우스는 그의 사우스 일렉트릭 인터내셔널 사업부를 통해서 NP를 차지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단순히 이와 같은 목적만을 위하여는 그들의 은행들로부터 120억달러의 군자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우스의 회장 빌 델벨크씨인 SEI의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사용한 단어는 합병이다. 그러나 NP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이 NP의 카운터파트인 회장 존 베이커씨와 최고경영책임자 키스 헨리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힘의 양보라기 보다는 차지하는데 열중한 사람들로 보

였다.

### 7. 주식의 매입

사우스는 NP의 주식을 매입해서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자기들이 소유분을 밝혔을 때의 지분은 5% 수준 이하였다.

베이커씨는 일반적으로 말을 과장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적정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비교해서 우리들의 주주들을 만족시킬만한 가격을 신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놓지 않는 이상" NP는 매각하려고 내 놓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 8. 미국의 사우스와 영국의 NP

현재의 계산으로는 내셔널파워는 약 68억파운드의 가액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입찰경쟁은 이 가액을 8억파운드까지 치솟게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보렌씨에 의하면 이 두 회사가 세계를 선도하는 에너지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NP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사우스의 매출액은 파운드로 계산해서 61억파운드이었고 앞지르고 있는 이익금은 8억 200만파운드였다. 여기에 비해서 NP의 매출총액은 36억 파운드였으며 수입은 7억 500만파운드였다.

### 9. 이어지는 전력회사의 매입

한 전력관련 정기간행 전문지가 200 번째 질문 등으로 괴롭히려고 하였을 때 이 드라마는 그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보였다.

1996년 4월 중순에 사우슨의 NP에 대한 예비교섭에 뒤이어 영국 그룹은 영국의 지역 전력회사인 사우슨 일렉트릭(미국의 사우슨과는 무관함)에 대한 입찰을 다시 재개하였다. 이 입찰은 합의된 다양성을 보였으며 26억파운드라는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 10. 정부의 제동

분석자들은 이것을 NP에 의한 미국 사우슨의 사업활동에 노상 장애물을 던짐으로써 대경실색케 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1996년 4월 24

일 수요일에 이 NP의 두꺼운 방어판자는 통상장관(과거의 에너지성이 통상성으로 흡수되었음)인 이안 랑씨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통상장관은 독점권과 합병위원회의 NP가 사우슨 UK의 주식의 공개매입에 대한 권고사항과 PG에 의해서 제외된 미드랜드 일렉트릭시티의 합병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뒤집어 엎어버렸다. 미드랜드 일렉트릭시티는 그 자체가 파키스탄이 곧 추진하게 될 58만 6천kW 우치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하여 파키스탄 호킨스와 미국의 GE 캐피탈과의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11. 민영화의 기본정신

랑 장관이 개입하는 이유는 발전사업자들이 주식의 공개매입으로 지역전기회사(REC)들을 합병하려고 한다고 보고

이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의 결정의 근거는 이와 같은 합병은 반 경제적이며 1989년의 민영화 절차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랑 장관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미국 사우슨 그룹이 NP의 주식의 공개매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군자금 조달에 깊숙히 빠지게 만들었다는 가설도 있다.

NP는 영국 사우슨에 대한 입찰을 단호하게 거절한 랑 장관의 사유가 미국 사우슨 그룹이 1995년에 다른 지역전력회사인 사우스 웨스턴 전기에 대한 11억파운드의 적의에 찬 입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2. 국내와 국외의 사정

만일 NP가 반 경쟁이라는 근거로 영국의 REC를 소유할 수 없다면 현재 REC를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사우슨도 NP와 같은 영국의 발전사업체를 소유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냉각적인 조치는 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NP는 한편으로 파키스탄에서 부토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의 같은 정부로서 그 자체의 발전설비 자산을 외국 그룹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흥정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 「파워 인 아시아」, 1996.4.29)

